

트로이 전쟁과 바다의 민족들*

오 홍 식**

- I. 머리말
- II. 트로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 III. 노스토이와 아카이와사
- IV. 노스토이가 세운 나라들과 테니엔·체케르
- V. 맺음말

I. 머리말

호메로스는 『일리아스(IΛΙΑΣ)』에서 그리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 메넬라오스의 왕비 헬렌을 되찾기 위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시인답게 원인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히타이트의 문서가 해독되고 연구되면서 역사가들은 소아시아 서부 해안을 놓고 히타이트와 대치하던 미케네 그리스가 히타이트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히타이트의 봉신국이었던 트로이를 장악하여 해안 지역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103].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강사

최근에는 트로이 원정의 원인을 더 넓은 차원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기원전 1200년 경 동지중해를 혼란에 빠뜨려서 청동기 시대를 실질적으로 막 내리게 하는 ‘바다의 민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바다의 민족들과 그리스인들을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도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트로이 원정 직후의 노스토이(nostoi, 트로이로부터 귀향하는 그리스군)의 활동이 파라오 메르넵타(Merneptah)와 라메세스(Ramesses) 3세 때 이집트에 침입한 바다의 민족들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그런데 이 주장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이집트 비문에 기록된 아카이와샤(Akaiwasha)와 데니엔(Denien)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인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그리스 연표와 이집트 연표를 좀 더 세밀하게 연계시키고 트로이 전쟁 후에 노스토이의 활동과 노스토이가 세운 나라들의 활동을 바다의 민족들의 활동과 연계시켜, 아카이와샤와 데니엔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¹⁾

제II장에서는 먼저 미케네 그리스의 아카이아인들과 히타이트인들이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 지역에서 다투고 있었고, 트로이 전쟁이 그러한 다투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고, 히타이트 원문들에서 아키야와(Ahhiyawa)라고 불리는 적대자들이 그리스어의 아카이오이(Achaiói, 아카이아인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 트로이 전쟁 직후 노스토이의 활동을 파라오 메르넵타 비문에서 언급된, 바다의 민족들 중의 하나인 아카이와샤에 연계시키고자 한다.

1) 2000년에 바다의 민족들에 관해 23명의 학자들이 논문들—17편의 논문—을 엮어 책을 내었다. Elizer D. Oren ed., *The Sea Peoples and Their World: A reassessment* (The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2000). 바다의 민족들과 에게해인들을 연관시키는 논문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거의 필리스티인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집트 비문에서 그리스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아카이와샤, 데니엔, 체케르를 다루는 논문은 보이지 않았다.

제Ⅳ장에서 노스토이들이 동지중해권을 떠돌며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모프소스(Mopsos, 노스토이는 아니다)와 암필로코스(Amphilochus)는 킬리키아의 말로스(Mallus)에, 테우크로스(Teucer)는 키프로스의 살라미스에 건국한다. 이들이 후에 람세스 3세의 치세에 침입한 Dnn(테니엔), Tkr(체케르)에 관련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트로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1. 아카이아인들-트로이-히타이트

기원전 1400년경 히타이트 왕 투달리야스 2세가 아나톨리아 서쪽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인 아르자와(Arzawa)를 공격하였고 성공하였다. 그 직후 그곳에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한다. 아르누완다스 2세가 부왕 투달리야스 2세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기록한 ‘마두와타스(Madduwattas) 원문’을 보자.

더욱이 짐의 아버님은 당신 마두와타스(주: 히타이트 왕의 봉신이다)를 혈맹으로 삼고자 하셨다.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맹서를 하게 하였고, 그는 이것들을 맹서로 확약하게 하였는데, 짐의 아버님의 맹서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짐의 아버지인 나는 이제 당신 마두와타스를 아타리시야스의 겸으로부터 구하였다. 짐의 아버지의 그리고 하티의 지지자가 되시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지파슬라산(Zippasla 산, 즉 시필로스산)의 땅을 주어 거하게 하였소. 당신 마두와타스는 당신의 군대와 함께 지파슬라 산의 땅을 점하고, 당신의 거점이 지파슬라 땅에 확립되게 하시오… 그러나 후에 아키야(Ahhiya)의 지배자 아타리시야스는 와서 당신 마두와타스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짐의 아버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아타리시야스를 막고자 키스나필리, 보병, 전차대를 파견하셨다…

여기서 ‘아키야(Ahhiya)’는 그리고 이후의 히타이트 기록에서는 ‘아키야와/아히야와(Ahhiyawa)’로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13세기 초 아마도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 3세가 썼을 ‘타와갈라와스(Tawagalawas) 편지’에 의하면, 아

키아와 왕의 동생 타와갈라와스와 아키아와 왕의 피호민 피아마라두스가 히타이트 제국의 일부인 리키아를 공략하자, 소아시아 연안에서 아키아와인들의 근거지인 밀라완다(밀레토스)에 히타이트 왕은 입성하였고, 타와갈라와스와 피아마라두스가 아키아와—적지 않은 히타이트학 학자들은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로 본다—로 도망하자 히타이트 왕은 신변보장을 할 터이니 피아마라두스를 자신에게 보낼 것을 아키아와 왕에게 편지를 써서 청한다.²⁾ “가라! [하티] 땅의 왕에게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 오라. 그래서… 그것을 나의 형제인 **아키아와** 왕에게…”

히타이트 제국에 항상 적대적이었던 아키아와를 많은 학자들이 ‘아카이오이’, 즉 미케네 그리스인들로 보고 있다. 송문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아히야와가 뤼케나이(전체 그리스 세계를 일컫는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종주국을 가리키는 것이든) 외의 다른 어떤 세력일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기원전 1400년경에서 1250년경까지 뤼케나이는 그 문명과 세력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 시기에 그처럼 장기간 동안 히타이트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만큼 강력한 해외세력은 뤼케나이 말고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³⁾

미케네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히타이트 제국을 포함해서 관찰하면 더 명확히 트로이 전쟁의 원인에 접근할 수 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7세기 라바르나스 왕 이래로 트로이(히타이트어로는 월루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트로이 남쪽에 위치한 아르자와, 후에는 아키아와 같은 소아시아 서부의 적국들로부터 히타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히타이트학 학자 브라이스는 “만약 우리가 히타이트 원문의 아키아와인들을 미케네 그리스인들로 받아들인다면, 13세기에 월루사

2) Hans G. Güterbock, “The Hittites and the Aegean World: Part 1. The Ahhiyawa Problem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37(1983), pp. 136–137.

3) 송문현, 「트로이 전쟁-전승과 증거 사이」, 『서양고대사연구』 21(2007), p. 44.

가 연루된 전쟁들 또는 그 전쟁들 중의 하나가 트로이 전쟁의 전승에 적어도 역사적 근거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⁴⁾고 기술하고 있다.

2. 히타이트를 언급한 그리스 사료들

히타이트인들은 트로이와 아카이아인들에 관한 기록을 상당히 남기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인 트로이 전쟁을 언급하면서 그 배후의 적인 히타이트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오늘날의 학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⁵⁾

그런데 논자가 보기에, 두 명의 그리스 저자인 디오도로스와 플라톤이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세기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기원전 400년경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궁정의사로 있었던 크니도스 출신 그리스 사람 크테시아스(Ctesias)의 글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테우타모스(Teutamos)가 아시아의 지배자였을 때… 그리스인들은 아가멤논과 함께 트로이로 원정하였다… 전쟁의 압박을 받자 트로이 지방의 왕이자 앗시리아 왕의 봉신이었던 프리아모스는(καὶ τὸν μὲν Πρίαμον βαρυνόμενον τῷ πολέμῳ καὶ βασιλεύοντα τῆς Τρωάδος, ὑπήκοον δ' ὄντα τῷ βασιλεῖ τῶν Ἀσσυρίων)… 원군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다. 그러자 테우타모스는 1만 명의 이디오피아인과 이와 비슷한 수의 수사 사람들과 200대의 전차를 파견하면서 티토노스(Tithonos)의 아들 뎀논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디오도로스, ii.22.1-3)

위의 디오도로스의 직접 인용문은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글이다. ‘트로이 지방의 왕이자 앗시리아 왕의 봉신이었던 프리아모스는…’ 여기서 앗시리아가 히타이트를 나타낸다고 보면, 소아시아 서부해안지역의 그리스

4) Trevor Brice, *The Kingdom of the Hittit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395.

5) 송문현, 「트로이 전쟁-전승과 증거 사이」, 『서양고대사연구』 21(2007), p. 45.

인들을 히타이트가 트로이를 전초기지로 삼아 대치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는 기원전 4세기 철학자 플라톤의 글에서도 그러하다.

일리온 부근의 예전 거주자들이 니노스⁶⁾ 치세에 앗시리아 세력에 의지하여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듯이 말이다… 트로이가 앗시리아 제국의 부분이었던 이래(τῆς ἀρχῆς γὰρ τῆς ἐκείνων [= Ἀσσυρίων] ἦν μῦθον), 트로이가 두 번째로 함락되면서⁷⁾ 그리스인들에 대한 큰 비난이 생겨났다. (플라톤, 『법률』, 685c-d)

디오도로스와 플라톤의 글을 통해, 트로이가 앗시리아의, 정확히 말하면 히타이트의 봉신국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전기와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히타이트를 앗시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히타이트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⁸⁾ 고대 그리스 저자들이 청동기 시대 그리스 역사를 몰랐었을 가능성이 크다.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로스는 암피트리온의 아들 인간 헤라클레스에 관해 알기 위해 이집트 사제들에게 조언을 구한다.⁹⁾ 안정된 나라인 고대 이집트에는 국가 관리(官吏)인 사관(史官)의 역할을 하는 사제계층이 있었다. 고대 세계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는 자국사만이 아니라 동지중해권의 역사도 국가차원에서 기록하였다. 반면에 그리스는 어떠한가?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디오도로스 같은 역사가들은 국가에 소속된 사관(史官)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역사를 기술하였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는 수많은 나라들로

6) 니노스는 앗시리아 제국과 니네베를 건설한 신화적 인물이다.

7) 트로이는 프리아모스의 아버지 라오메돈의 치세에 헤라클레스에 의해 정복되었다. 호메로스, 『일리아스』, 5.640 ff.

8) 송문현, 「트로이 전쟁-전승과 증거 사이」, 『서양고대사연구』 21(2007), p. 60, 각주 51을 참조하십시오.

9) 헤로도토스, ii.44; 디오도로스, i.24.2. 헤로도토스의 헤라클레스 탐구에 관해 좀 더 상세한 것을 알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오홍식,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영웅승배」, 『서양고대사연구』 24(2009), pp. 132-135.

나뉘어져 있었고 전쟁과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 고대 그리스 저자들은 그들의 청동기 시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Ⅲ. 노스토이와 아카이와사

파라오 메르넵타 5년의 비문에서 언급된 다섯 바다의 민족들 중의 아카이와사가 트로이 원정을 끝내고 그리스로 귀향하던 중 방황하였던 아카이아인들이었음을 이번 장에서 주장하려 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이러하다. 첫째로 『오디세이아』와 『아폴로도로스』에 나오는, 트로이를 함락한 후 귀향하는 그리스인들인 노스토이의 방황은 바다의 민족들의 준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 아카이아인이 히타이트인들에게 ‘아키야와’로 알려졌다면 그 당시 히타이트의 속적 이집트인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발음으로 알려졌을 것이며, 셋째로 『파로스 연대기(Marmor Parium)』가 말하는 트로이 전쟁의 연대와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2000)가 말하는 메르넵타 5년의 연도는 아카이와사가 트로이 전쟁 직후에 이집트에 침입한 노스토이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1. 노스토이의 행적

우선 트로이를 함락시킨 후 귀향하는 그리스 군대의 방황을 바다의 민족들의 방황과 연결시켜보자. 트로이 원정군은 승전 후 트로이에 정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곧바로 그리스로 귀향하지도 않고 이집트와 에게해 지역의 섬들을 방황한다. 이를 아폴로도로스의 「요약」 제6장이 가장 잘 상술하고 있다.

헬라스인들은 방랑 끝에 여러 나라에 상륙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더러는 리비아에, 더러는 이탈리아에, 더러는 시켈리아에, 더러는 이베리아 근처의 섬들에, 더러는 상

가리오스(sangarios) 강변에 정착했다. 키프로스 섬에 정착한 자들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카페테우스에서 파선한 자들은 더러는 이리로 더러는 저리로 표류했으나 구네우스는 리비어로 갔고 텃살로스의 아들 안티포스는 펠라스고이족에게 가서 나라를 차지한 뒤 그곳을 텃살리아라고 불렀다. 필록테테스는 이탈리아의 캄파니아인들에게 갔다. 페이딕포스는 코스인들과 함께 안드로스 섬에, 아가페노르는 키프로스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정착했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15, 천병희 역. 이하 아폴로도로스 한글 번역자는 천병희)

[아폴로도로스와 그밖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네우스는 자신의 배를 버리고 리비에의 키니스(Kinys) 강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한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15a)

페이딕포스는 코스인들과 함께 먼저 안드로스로, 다음에는 키프로스로 밀려가 그곳에 정착했다... 틀레폴레모스의 전우들은 크레테에 갔으나 그 뒤 바람에 밀려 이베리아의 섬들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필록테테스는 이탈리아의 캄파니아인들에게로 밀려가 레우카니아인들과 전쟁을 한 뒤 크로톤과 투리오이 근처의 크리밋사에 정착한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15b)

그러나 테모폰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키프로스에 정착했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17)

스파르타 왕이자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오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메넬라오스는 디오메데스와 네스토르와 함께 출항했다. 처음 두 사람은 순조롭게 항해하지만 메넬라오스는 폭풍을 만나 나머지 함선들을 잃고 다섯 척만 이끌고 이집트에 도착했다.¹⁰⁾ (아폴로도로스, 「요약」 6.1)

메넬라오스는 모두 다섯 척의 함선을 이끌고 앗티케의 수니온 곳에 도착하나 그곳에서 다시 바람에 밀려 크레테 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리비아와 포이니케와 키프로스와 이집트의 해안을 따라 떠돌아다니며 재물을 많이 모았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인들의 왕 프로테우스의 궁전에서 헬레네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메넬라오스가 갖고 있던 것은 구름으로 만든 그녀의 환영에 불과했기 때

10) 『오디세이아』, iii.153ff. 및 276ff. 참조. 메넬라오스의 뒷이야기에 관해, 아폴로도로스, 「요약」, 6.29f. 참조.

문이다. 8년 동안 방랑하다가 그는 미케네에 입항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한 오레스테를 만났다. 그는 스파르타로 돌아가 자신의 왕권을 되찾았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29)

오디세우스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일설에 따르면 리비아 주위를, 일설에 따르면 시켈리아 주위를, 또 다른 일설에 따르면 오케아노스 또는 티르레니아 해 주위를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7.1)

오디세우스에 관해서는 물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가장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분께서 나를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해적들**과(ἄμα ληιστῆροι πολυπλάγκτοι οἱ) 함께 이집트로 길을 가도록 보내시어, 나를 파멸케 하셨으니 말ियो. (『오디세이아』 17.425)

[나는] 왕의 말들을 향하여 마주 다가가서, 그의 무릎을 잡고는, 입 맞추었소. 그러자 그도 나를 불쌍히 여겨 구해주었고, 눈물을 흘리는 나를 자기 전차에 태우더니, 집으로 데리고 갔소.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몰푸레나무 창을 들고 내게 달려들며, 나를 죽이려 했소. 그들은 몹시 화가 났던 것이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막았으니... 칠 년 동안 나는 그곳에 머물며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소. (『오디세이아』 xiv.275-86. 천병희 역)

노스토이의 행적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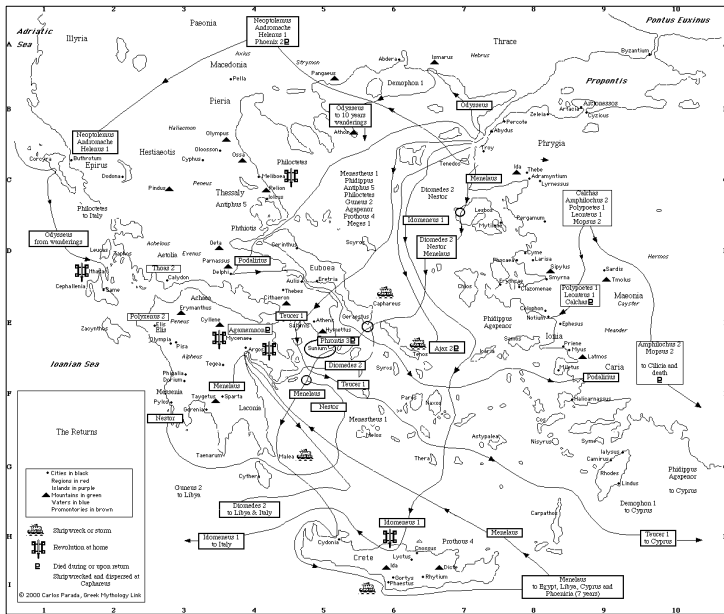


그림 1 <http://www.maicar.com/GML/MapReturns.html> (2012년 4월 1일)

그리스측 사료를 종합하면, 트로이 전쟁 직후 노스토이는 주로 동지중해권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는 바다의 민족들의 활동과 닮은 점이 있다.

2. 이집트 연표들과 『파로스 연대기』

1) 『캠브리지 고대사』의 연표와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의 연표

아카이와사와 데니엔 모두 그리스인들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와 같은 노스토이의 활동을 메르넵타 5년의 아카이와사와 연결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라메세스 8년의 데니엔과 연결시켜야 하는가? 학자들의 견해도 나뉜다. 우선 논자는 노스토이의 활동을 메르넵타의 아카이와사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스토이가 트로이 전쟁 직후에 활동을 하였다면, 그리고 히타이트 사료에 그리스인들을 ‘아카이와’라고 기술

하였다면, 같은 시기 이집트인들도 그와 비슷한 발음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파라오 메르네프타 5년, 바다의 민족들의 준동에 관한 비문을 보자.

사악하고 타락한 리비아 족장인, 데드의 아들 메리레(Meryre)가 그의 궁수들인 셰르덴(Sherden), 셰켈레쉬(Shekelesh), 'Ikwš, 루카(Lukka), 테레쉬(Teresh)를 거느리고 테헤누(Tehenu)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나라에서 모든 전사들 중에서 그리고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서 정예를 거느렸다. 그는 아내와 그의 자식들—군대의 지휘관들이다—을 대동하고 페리레(Perire) 땅 서쪽 경계에 다다랐다.

'Ikwš는 학자들에 의해 몇 가지 방식으로 모음이 삽입된다. 아카이와샤(Akaiwasha), 아가와샤(Akawasha), 에크웨쉬(Ekwesh). 논자는 ‘아카이와샤’라는 형태를 택하였다. 그런데 메르네프타 5년은 기원전 몇 년에 해당하는 것일까? 사실 학자들마다 다르다. 신왕국 연표로서 많이 사용되는 연표는 두 개가 있다. 『캠브리지 고대사(Cambridge Ancient History)』(제3판, 1973)와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2000)에서 사용한 연표가 그것이다.

	CAH ³ (1973)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 (2000),	언급된 바다의 민족들(그리스인)	『파로스 연대기』에 따른 연도
제2중간기		1650-1550		
제15왕조	1674-	1650-1550		
신왕국	1567-	1550-1069		
신왕국의 1대 파라오, 아모세		1550-1525		
메르네프타 재위	1236-1223	1213-1203		
메르네프타 5년	1231	1208	'Ikwš (아카이와샤)	트로이 전쟁, 1218/7-1209/8

람세스 3세 재위	1198-1166	1184-1153		
람세스 3세 8년	1190	1176	Dnn(데니엔)	
			Tkr(체케르)	테우크로스가 키프로스의 살 라미스에 건국, 1202/1
			Prst(페레세트/ 펠레세트)	

메르넵타 5년이 기원전으로 몇 년인지를 알려면, 결국 신왕국의 연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한다. 버넬은 신왕국 연표문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제12왕조처럼 제18왕조 연표의 닛은 시리우스별의 관측 또는 소티스 연대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18왕조에서는 아멘호테프 1세 재위 9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최근까지 이집트학 학자들은 이 관측이 관례에 따라 뎀피스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고, 통치 기간을 근거로 제18왕조가 기원전 157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더 최근에 학자들은 관측 시점의 행정수도였고 소티스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파피루스가 발견된 테베를 관측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아멘호테프 1세 재위 9년과 제18왕조의 시작을 모두 20년가량 낮추어 기원전 1550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 독일 학자 크라우스는 더 나아가 테베보다 훨씬 남쪽인 엘레판틴에서 관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18왕조의 시작을 기원전 1539년으로 보았다.¹¹⁾

히소스의 제15왕조가 1650년에 시작되었고 이집트인의 제18왕조가 기원전 1570년경 또는 1550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경우, 버넬은 “둘 중 어느 것도 기원전 1650년 이후의 기간에서 제15왕조가 존

11)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1991), 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2: 고고학 및 문헌증거』(소나무, 2012), pp. 472-473.

속한 103~108년을 짜내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¹²⁾ 그런데 『블랙 아테나 2』(1991)가 출간된 후 나온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2000)는 히소스의 아바리스 축출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연대표에 따르면 아바리스의 정복은 아모세 18년과 22년 사이에, 즉 기원전 1532년과 1528년 사이로 훨씬 더 정확하게 연대를 책정할 수 있다.¹³⁾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가 생각하고 있는, 신왕국의 첫 번째 왕조인 제18 왕조의 초대 파라오 아모세 1세 원년은 기원전 1550년경이고, 히소스가 아모세 18년과 22년인 1530년경에 축출되었으니, 1650년과 1530년경 사이에서 103년과 108년을 모두 빼낼 수 있다. 버낼은 히소스를 완전히 축출한 직후에야 아모세 원년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논자는 아모세 원년을 1550년으로 보는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의 신왕국 연표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그 이집트 연표가 논자가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의 『파로스 연대기(Marmor Parium)』의 연표와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그리고 『파로스 연대기』를 필자가 신뢰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될 것이다).

2) 파로스 연대기

『파로스 연대기』의 편찬자는 ‘아테네의 첫 번째 왕 케크롭스로부터 파로스에서는 아스티아낙스(Astyanax)가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디오게네토스(Diogenetus)가 아르콘에 있었을 때까지(논자 주: 즉, 기원전 264/3년) 모든 종류의 기록과 일반역사서를 근거로 연대기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 미케네 그리스사에 관련하여 『파로스 연대기』는 26개의 주요 사건들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대기는 연(年) 단위로 구체적으

12) 히소스의 이집트 지배 기간을 유세비오스는 103년으로, 『토리노 왕명록』은 108년으로 말하고 있다.

13) Ian Shaw ed.,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2000), p. 185.

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소중하다. 논자는 그 동안 여러 논문들에서 『파로스 연대기』가 말하는 연도를 사용해왔고, 사용해본 결과 다나오스의 도래(1511/10), 카드모스의 도래(1519/1518) 전까지는 그 연대를 믿을 만하다고 본다(그러나 그 이전의 연대는 단순히 순서만을 기록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¹⁴⁾

트로이 전쟁의 연대를 따져보자. 이 문제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에게는 물론 오늘날의 역사가들에게도 난제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 전후에 있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파로스 연대기』에는 트로이 원정군의 출정 연도와 함락 연도를 제23, 24번째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54년 전(논자 주: 1218/7 BC), 아테네 왕 [메]네스테우스 13년에, [헬레]네스가 트로이로 원정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45년 전(논자 주: 1209/8BC), 아테네 왕 [메네스테]우스 <2>2년 트[아르젤리]온 달이 끝나기 7일 전에, 트로이가 함락되었다.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18/7-1209/8년에 벌어졌다. 버넬도 트로이 전쟁의 기간을 기원전 1220-1200년으로 본다(그는 도기연대 LHIIC도 상향조정한다).

아카이와샤도 포함된 바다의 민족들이 침입한 메르네프타 5년은 기원전으로 몇 년일까? 버넬은 메르네프타 5년을 기원전 1231년으로, 즉 『캠브리지 고대사』(제3판)의 신왕국 연표를 받아들이고 있다. 버넬은 연표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트로이 VIIa는 후기헬라스IIC의 시작(이 책에서는 기원전 1220년경으로 설정했다) 직후에 몰락했다. 이처럼 고고학적 근거에서 트로이 포위는 기원전 1220~1200년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파라오 메르네프타 5년, 즉 기원전 1231

14) 오홍식, 「다나오스 이전의 아르코스 왕조와 히소스」, 『서양고대사연구』 27(2010), pp. 241-242을 참조하시오.

년경에 발생했다는 ‘바다의 민족들’의 주요 침입에 관한 이집트의 기록과도 잘 맞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바다의 민족들의) 동맹이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후에 결성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진다.¹⁵⁾

버넬은 아카이와샤도 포함된 바다의 민족들이 이집트에 침입한 후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의 어떤 기록이나 전승에도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공격한 후 트로이와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트로이 전쟁이 있은 직후 노스토이들이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침입하며 떠돌았다고 그리스의 전승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메르네프타 5년은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에 따르면 기원전 1208년이고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218/7-1209/8년에 벌어지고 트로이 전쟁이 끝난 1년 후 또는 같은 해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아카이와샤의 이집트 침입이 있었던 셈이니(해로를 통해 침입했다면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라도 같은 해 침입이 가능하다), 『파로스 연대기』는 적어도 『캠브리지 고대사』(제3판)보다는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가 사용하는 신왕국 연표와 잘 맞는다. 트로이가 함락된 직후, 아카이아인들은, 또는 히타이트어로 아키아와는 메르네프타 5년에 이집트어로 아카이와샤로서 이집트를 침입한 것이다.

IV. 노스토이가 세운 나라들과 데니엔·체케르

라메세스 3세 제8년—『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에 따르면, 기원전 1176년—에도 바다의 민족들이 침입했다. 라메세스 3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5)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1991), 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2: 고고학 및 문헌증거』(소나무, 2012), pp. 741-742.

… 그들은 자신들의 섬에서 외국에 대한 음모를 꾸몄다. 한꺼번에 온 나라가 동요하더니 제각각 전쟁에 휩싸였다. 하티(중앙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코테(킬리키아), 카르케미시(유프라테스 상류), 아르자와, 알라시아(키프로스), 그 어느 국가도 그들의 무기 앞에 버틸 수 없었다. 그 국가들은 고립되었고, 아무르(시리아)에 하나의 진지가 세워졌다. … 그들 동맹은 Prst와 Tkr, Šklš(세케레쉬), Dnn, Wšš(우세쉬)였다.

그리스인들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Dnn(Denyen, 데니엔), Tkr(Tjekker, 체케르)는 이곳 IV에서 다루고, Prst(Peleset, 펠레세트)는 맺음말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데니엔과 체케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 바다의 민족들이 준동하여 동지중해에 그들의 나라를 세운 후 람세스 3세 때 이집트로 침입한 사람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모프소스, 암필로코스과 데니엔

1) 킬리키아 아다나의 다누니임족(族)

1946년 루비언어(히타이트 상형문자)와 페니키아어 두 언어로 기록된 히타이트 비문이 독일 고고학자 헬무트 보쎈트(Helmuth Bossert)에 의해 킬리키아의 카라테페에서 발굴되었다. 이 비문은 기원전 9세기 킬리키아의 아다나(Adana) 평원을 지배했던 아지타와드 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자 남긴 것이다.

그런데 아지타와드는 루비언(Luvian) 언어로 아다나와(Adanawa), 그리고 페니키아어로는 Dnnyim이라고 불리는 민족의 왕이었다. 1950년 오리엔트 전공 고고학자 올브라이트는 킬리키아에서 Dnnyim(Danuniyim/다누니임)이¹⁶⁾ 바다의 민족들의 이주 기간에 그곳에 정착했던 그리스 혈통이라는

16) R. D. Barnett의 모음삽입을 따랐다. R. D. Barnett, "The Sea Peoples,"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3rd ed.,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5), Volume II, Part 2, p. 365.

가설을 제기하였다.¹⁷⁾ 논자는 올브라이트의 가설을 받아들여, 트로이 함락 직후부터 시작하여 노스토이가 아다나(그리스 사료의 말로스 인근)에 나라를 건국하고 람세스 3세 때 이집트를 침입하고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지타와드 명문’에는 아지타와드 왕가의 시조가 언급되어 있다. 사이러스 고든도 이 명문을 전부 해독하였는데, 그 일부를 인용해보자.¹⁸⁾

나는 바알의 축복을 받은, 바알의 하인인 아지타와드다.
DNNYM(Danunites¹⁹⁾)의 왕 아우리크가 나를 드높였다.
나는 DNNYM을 재촉하여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태양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아다나(DN)의 평원의 땅을 넓혔다. (제1석주, 1-4행)

그리하여 아다나의 평원을, 그리고 “MPŠ(Mopš)가문²⁰⁾을 보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시대에 아다나 평원의 땅에 좋은 것이 많았고,
DNNYM에게 어려운 점이 없었다. (제2석주, 14-16행)

아지타와드의 속한 왕가의 시조의 이름은 페니키아어로 MPŠ인데, 이자는 트로이 함락 직후 노스토이를 이끈 모프소스(Mopsos)와 여러 가지로 일치하는 점이 있다.²¹⁾ MPŠ가 모프소스라면, 노스토이의 지도자 모프소

17) W. F. Albright, ‘Some Oriental glosses on the Homeric problem,’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54(1950), pp. 171-172.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1991), 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2: 고고학 및 문헌증거』(소나무, 2012), p. 603에서 재인용.

18) Cyrus H. Gordon, “Azitawadd’s Phoenician Inscrip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Vol. 8, No. 2 (Apr., 1949), pp. 108-115.

19) DNNYM을 앞서 바넷은 Danuniyim으로, 사이러스 고든은 Danunites로 표기하고 있다.

20) “모프스(Mopš) 가문”은 아지타와드(Azitawadd) 왕가의 이름이다.

스는 노스토이를 거느리고 이동을 하여 킬리키아의 아다나 평원에 왕조를 세우고, 후에 DNNYM이 라메세스 3세 8년에 이집트 비문의 dnn으로서 이집트를 침입했었을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관련 그리스측 사료를 망라하여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

2) 모프소스와 아르고스 왕 암필로코스

트로이를 함락한 후 대부분의 노스토이는 해로를 통해 이동하였지만, 육로를 통해 이동한 노스토이가 있었다. 아폴로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암필로코스, 칼카스, 레온테우스, 포달레이오스, 폴뤼포이테스는 일리온에 자신들의 함선들을 버리고 걸어서 콜로폰으로 갔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2)

트로이 원정이 끝나자 참전했던 암필로코스와 칼카스 등은 육로로 남쪽으로 진군하여 이오니아의 도시 콜로폰에 이른다. 콜로폰의 지배자 모프소스는 누구인가?

신이 그들[만토와 그 일행]을 내보내어 식민지를 찾게 하자, 그들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왔다. 그들이 클라로스—필자 주: 아폴로도로스가 ‘콜로폰’을 언급한다면, 파우사니아스와 스트라본은 콜로폰의 인근 도시 ‘클라로스’를 언급한다—에 이르자, 크레타인들이 그들에 대해 싸우러 왔고 그들을 라키오스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라키오스]는 만토로부터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곳으로 왔는지를 알고는, 만토를 그의 아내로 삼았고 만토와 함께 온 자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라키오스와 만토 사이에서 태어난 모프소스는 그 지역으로부터 카리아인들을 몰아냈다. (파우사니아스, vii.3.2)

21) Frank H. Stubbings, “The Recession of Mycenaean Civilization,”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3rd ed.,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5), Volume II, Part 2, p. 355도 참조하시오.

『파로스 연대기』의 연도에 따르면 기원전 1251/50년, 테베는 에피고니(Epigoni) 전쟁에서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와 아르고스인들에 의해 점령되고, 테베의 유명한 점쟁이 테이레시아스는 딸 만토와 도망가다가 죽고 만토는 델피의 아폴론 신에게 점령군에 의해 바쳐진다.²²⁾ 만토는 아폴론 신의 명에 따라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오니아로 건너간다. 그러다가 클라로스의 지배자 라키오스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모프소스는 클라로스를 지배했던 크레타 사람 라키오스와 만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트로이가 함락된 직후 암필로코스와 칼카스는 걸어서 콜로폰—클라로스에 인접해 있다(아래의 지도 참조)—에 도착하였는데, 칼카스와 모프소스 사이에 예언술 시합이 벌어졌고, 이 시합에서 패한 칼카스는 낙담하여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아폴론과 만토의 아들인 예언자 모프소스의 환대를 받았을 때 모프소스는 칼카스에게 예언술 시합을 하자고 도전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자 칼카스는 낙담하여 죽었고 노티온(주: 콜로폰의 항구)에 묻혔다. (아폴로도로스, 『요약』 6.3-4)

그 후 암필로코스는 노스토이를 이끌고 이동한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 때 터키 남쪽 팜필리아인들은 페르시아에 30척의 함선을 제공했다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들 팜필리아인들은 트로이아가 함락되고 군대가 해산할 때 암필로코스와 칼카스를 따르던 자들의 후손들이다. (헤로도토스, vii.91.1)²³⁾

헤로도토스는 팜필리아인들이 트로이 함락 후 암필로코스와 칼카스를 따랐던 자들의 후손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후 이들은 킬리키아의 말로

22) 파우사니아스, vii.3.1; 아폴로도로스, iii.7.4도 보시오.

23) 스트라본(xiv.4.3)은 헤로도토스(vii.91.1)를 인용하고 있다.

스로 이동한다. 스트라본은 이를 각별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키드노스(Cydnus)강 다음에 피라모스(Pyramus)강—앞서 언급했던 강이다—에 이르는데, 피라모스강은 카타오니아(Cataonia)에서 발원한다. 아르테미도로스(Artemidorus)에 따르면, 그곳으로부터 솔리(soli)까지 직선 항해로는 500스타디온 거리이다. 근처에 말로스(Mallus)가 있는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암필로코스와 모프소스에 의해 건국되었는데, 모프소스는 아폴론과 만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그에 관한 많은 신화가 있다… 그 후 암필로코스는 아르고스로 가버렸으나, 그곳 상황에 불만이어서 말로스로 돌아왔고, 그러나 그곳에서 지배권의 한 몫으로부터 제외되자 모프소스와 일대일 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 모두 일대일 싸움에서 전사하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를 두고 묻혔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무덤들은 피라모스강 근처 마가르사(Magarsa) 이웃에서 볼 수 있다. (스트라본, xiv.5.16)

스트라본의 상기의 글에 따르면, 피라모스강 하구에 위치하면서 지중해에 면한 말로스로의 이동에서 모프소스와 더불어 암필로코스가 무리의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말로스의 지배권을 놓고 두 지도자가 일대일 싸움을 벌이다가 두 사람 모두 전사했다는 내용이다.²⁴⁾

요약해보자. 트로이가 함락되고 칼카스와 암필로코스는 배를 버리고 트로이 원정군의 일부를 이끌고 걸어서 남쪽에 있는 콜로폰으로 이동하였다. 예언자 칼카스와 그곳의 지도자 모프소스는 예언술 시합을 했고, 시합에 진 칼카스는 그곳에서 죽었다. 암필로코스와 모프소스는 사람들을 이끌고 말로스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라를 세웠으나 후에 두 사람이 싸움을 벌여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런데 모프소스와 암필로코스가 나라를 세운 말로스는 앞서 언급했던 두 언어로 기록된 히타이트 비문에 따르면 아다나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지타와드 왕가의 시조 MPŠ와 모프소스(Mopsus)는 동일 인물일 개연성이 너무 크다.

24) 아폴로도로스, 「요약」, 6.19도 참조하시오.

이 개연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아다나의 사람들인 DNNYM은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 암필로코스가 이끌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암필로코스는 그리스의 어느 나라 사람일까? 우선 앞서 인용한 스트라본(xiv.5.16)에 따르면 모프소스와 암필로코스가 말로스에 나라를 세웠고, “그 후 암필로코스는 아르고스로 가버렸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르고스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상세히 따져보자.

에우리피데스에 따르면 알크마이온이 미쳤을 때 테이레시아스의 딸 만토에게서 낳은 암필로코스와 티시포네 남매를… 그리하여 암필로코스는 아폴론의 신탁에 따라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를 세웠다. (아폴로도로스, iii.7.7)

상기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암필로코스의 아버지는 알크마이온이다. 아르고스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파우사니아스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아르고스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인들로서, 그들은 세 왕국으로 나뉘어졌다… 멜람포스로부터는 6세대에 6명이 암피아라오스(Amphiaras)의 아들 암필로코스에 이르기까지 내려왔다… 트로이 함락 후, 암필로코스가 오늘날 암필로키아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주하여, 스테넬로스의 아들 킬라라베스(Cylarabes)가 유일한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도 후손이 없었고, 이웃 나라 왕인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르고스를 취하였다. (파우사니아스, ii.18.4-5)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암필로코스는 아르고스 왕 암피아라오스의 아들이다. 투키디데스도 암필로코스의 아버지를 암피아라오스로 말하면서 그의 나라를 아르고스로 말하고 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암필로코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로 귀국했다. 그러나 그곳의 사태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암프라키아 만으로 가서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를 건설하고 암필로키아의 나머지 지역을 식민

지로 삼고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름을 따와 신도시를 아르고스라고 불렀다. (투키디데스, ii.68.3:)

그런데 아폴로도로스는 암필로코스의 아버지를 다른 쪽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iii.7.7과는 달리 말하고 있다.

10년 뒤 후계자들(Epigoni)이라고 불리는, 전사자들의 아들들이 테바이로 진격하기로 결정했으니 아버지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원정에 참가한 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암피아라오스의 아들들인 알크마이온과 암필로코스,...(아폴로도로스, iii.7.2)

아폴로도로스가 iii.7.7에서 암필로코스의 아버지로 알크마이온으로 기록한 것은 틀린 기록임을 알 수 있다(알크마이온은 암필로코스의 형제다). 정리하자면 암필로코스는 아르고스 왕 암피아라오스의 아들이다. 암피아라오스는 테베를 공격했던 일곱 장군들 중의 하나였고, 그 공격 연도는 『과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251/50년이다. 암피아라오스의 두 아들 암필로코스와 알크마이온은 10년 후 테베를 재차 공격하여 테베를 함락했던 에피고니(Epigoni)에 속했다.

그렇다면 모프소스와 암필로코스가 말로스에 나라를 세웠을 때 아르고스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아르고스는 다나오스(Danaus)가 이집트로부터 쫓겨와 기원전 1511/10년에 세운 나라이고, 그 후부터 그들은 다나오이(Danaoi)라고 불리었다. 암필로코스가 이끌었던 아르고스인들, 즉 다나오이인들과 히타이트 비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누니임(DNNYM)은 동일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모프소스와 암필로코스는 말로스에서 죽었지만, 그들이 이끌었던 사람은 남쪽으로 더 이동하였다.

칼리노스(논자 주: 기원전 7세기 시인)에 따르면, 칼카스는 클라로스에서 죽었으나, 모프소스가 이끈 사람들은 타우로스 산맥을 넘었고, 일부는 팜필리아에 남았으나 일부는 킬리키아, 시리아, 멀리는 페니키아까지 흩어졌다. (스트라본, xiv.4.3)

모프소스 사후 그의 백성은 남쪽으로 더 이동하여 페니키아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스트라본이 말하는 “모프소스가 이끈 사람들”에는 모프소스가 왕으로 통치했던 콜로폰(또는 클라로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르고스 왕 암필로코스가 이끈 아르고스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르고스인들은 ‘Danaoi’이니 이들이 람세스 3세의 비문에 Dnn으로 기록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²⁵⁾

25) Danaoi를 자음으로만 나타내면 Dn인데, 라메세스 3세 비문에는 Dnn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 “고든에 따르면, 다나네Danane라는 이름은 선형문자A 문서에 나타난다. 그는 마지막 음절 네-ne를 크레타어와 우가릿어 이름에 공통된 접미사로서,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 특정한 ‘민족명의 접미사’로 쓰이는 -n(이는 인도유럽어에서 흔하다)으로 설명한다. 렌즈버그가 지적하듯이, 이 접미사가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로 Dnn과 Dn의 두 형태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마틴 버넬 지음/오홍식 옮김, 『블랙 아테나 2』, p. 605.



그림 2: 트로이를 함락한 후, 아르고스 왕 암필로코스가 이끈 노스토이의 행로. 아다나(Adana)는 킬리키아의 중심도시였다. 킬리키아는 라메세스 3세의 비문에서 코드(Qode)로 기록되어 있다. '아다나인들'은 두 언어로 기록된 히타이트 비문에서 루비안어로 아다나와(Adanawa), 페니키아어로는 Dnnym(Danuniyim/다누니임)이다.

2. 테우크로스와 체케르

라메세스 3세 8년에(『옥스퍼드 이집트고대사』에 따르면, 기원전 1176년) 이집트를 침입한 바다의 민족들 중에 체케르가 있다. 트로이 전쟁 이후, 키프로스에 자신의 나라를 건국한 그리스인 테우크로스(teucer)가 있는데, 우선 두 이름의 자음이 동일하다. 아폴로도로스는 테우크로스의 아버지에게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테우크로스의 아버지는 텔라몬이다.²⁶⁾ 텔라몬은 자식이 없었던 살라미스(그리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²⁷⁾ 펠롭스의 손녀 페리보이아(Περύβοια)와 결혼한다.²⁸⁾ 그 후 텔라몬은 헤라클레스가 이끄는 트로이 원정에 참전하였고, 그 공으로 트로이 왕 라오메돈—프리아모스의 아버지—의 딸 헤시오네를 전리품으로 받고, 헤시오네에게서 그의 아들 테우크로스가 태어난다. (아폴로도로스, iii.12.7)

텔라몬이 헤라클레스와 함께 라오메돈이 다스리는 트로이를 공격했다면, 그의 아들 테우크로스는 아가멤논과 함께 라오메돈의 아들 프리아모스가 다스리는 트로이를 공격했다. 그는 메네스테우스(트로이 원정에 참전한 아테네 사람들의 지도자), 테세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목마에 들어갔던 용사다.²⁹⁾ 그는 트로이로부터 살라미스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쫓겨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그가 트로이로부터 귀국한 후 그 자신의 나라로부터 그를 추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테우크로스가 키프로스에 살라미스 시를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를 쫓아낸 자는 텔라몬 아니면 누구겠는가? (파우사니아스, viii.15.7)

살라미스의 왕이자 아버지인 텔라몬이 테우크로스를 쫓아내자, 그는 키프로스로 가서 고향 그리스의 살라미스를 생각하며 살라미스라는 나라를 건국하였다는 이야기다.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테우크로스 왕가는 그의 후손 에바고라스의 시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에바고라스가 페르시아 대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405-404 to 359-358 BC)와 동시대인이니 기원전 4세기까지 지속된 셈이다.³⁰⁾

그런데 『파로스 연대기』는 26번째 사건으로 테우크로스에 관해 다음과

26) 파우사니아스, i.5.2, viii.15.6.

27) 파우사니아스, i.35.2, ii.29.10을 참조하시오.

28) 파우사니아스, i.42.4. 그리고 디오도로스 iv.72.7과 핀다로스(『이스트모스 송가』 6.45, 6.65)도 참조하시오.

29) 파우사니아스, i.23.8.

30) 파우사니아스, i.3.2, ii.29.4.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38년 전, 데모폰이 아테네 왕이었을 때, 테우크로스가 키프로스에 살라미스를 건국하였다.

『파로스 연대기』가 기원전 264/3년에 기록되었으니, 테우크로스가 키프로스의 살라미스에 건국한 때는 기원전 1202/01년이다.

테우크로스에 관련된 키프로스의 살라미스의 이야기는 고고학적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살라미스가 위치한, 청동기 시대 엔코미(Enkomi)는 LHIIIb 말에 파괴되었고, 그것을 재건한 사람들은 LHIIIc의 도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유형은 분명히 그 지역의 유형으로부터 발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본토의 도기로부터 발전된 것이다”³¹⁾

이집트를 침입한 체케르인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정착한 것일까? 이에 대해 『웬아문 이야기』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³²⁾ 웬아문은 기원전 11세기 카르낙 신전의 아몬 신 사제로 ‘태양 배’를 건조할 목재를 구입하러 페니키아 배를 타고 게발(Gebal, 비블로스)로 향해하다가 첫 번째 기항지에 들른다.

나는 세 번째 시즌의 네 번째 달까지 타니스(Tanis)에 거하였다. 네수베네브데드와 텐타몬이 선장 멘게베트³³⁾를 딸려 환송하였고, 나는 세 번째 시즌 네 번째 달 제1일에 거대한 시리아 해로 들어섰다. 나는 체케르의 도시 도르(Dor)에 이르렀고, 도르의 왕 베델이 나를 위해 많은 빵과 포도주 한 항아리, 소고기 한 덩어리를 보내왔다.³⁴⁾

31) Frank H. Stubbings, “The Recession of Mycenaean Civilization,”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3rd ed.,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5), Volume II, Part 2, p. 355.

32) ‘웬아문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선, 유윤종, 『동 지중해 문화에 나타난 ‘귀향’ 모티프의 역사적 의미』, 『서양고대사연구』 18(2006), pp. 37-38을 보시오.

33) 이집트 배에 승선한 시리아 선원을 지휘하는 자.

체케르의 도시 도르는 오늘날의 하이파 부근이다. 체케르의 도르의 멸망을 브레스티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도르는 기원전 11세기 중엽 진흙 벽돌이 불로 붉게 되고 재와 파편의 두꺼운 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격을 받아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에프레임 스텐(Ephraim Stern)은 이를 당시의 페니키아인들의 팽창에 연계한다. 이후 체케르를 언급하는 문헌자료도 없고 고고학 자료도 없다. 도르는 기원전 10세기 초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속된다.”³⁵⁾

V. 맺음말

트로이 원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트로이 원정을 바다의 민족들의 활동이라는 더 큰 사건 속에서 구명해보려는 노력이다. 트로이 원정을 관계사의 차원에서 연구할 경우,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그리스 연표와 이집트 연표를 맞추는 작업이다. 논자가 두 지역의 연표를 맞추는 작업의 기초로, 우선 기원전 3세기에 기록된 『파로스 연대기』가 말하는 트로이 전쟁의 시기 1218/7-1209/8년을 믿을 만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집트에 침입한 바다의 민족들 중에 아카이와샤와 데니엔이 그리스인들이라고 보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메르네프타 치세 때 아카이와샤가, 라메세스 3세 때 데니엔이 침입하였다. 논자는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사료에서 ‘아카이오이’로 그리고 히타이트 사료에서 ‘아키야와’로 기록되었다면, 메르네프타 치세에 침입한 아카이와샤가 아키야와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두 지역의 연표로 맞출 수 있을까? 이집트 신왕국 연표로 학자들이

34) J. H. Breasted, coll., ed., trans., *Ancient Records of Egypt: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Earliest Times*, 5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6), Part Four, § 557 ff. <http://www.reshafim.org.il/ad/egypt/wenamen.htm> (2013년 2월 5일)에서 재인용.

35) *Ibid.*

많이 사용하는 것은 『캠브리지 고대사』의 연표와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의 연표이다. 히소스 치세와 신왕국의 연표에 대해서, 논자는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의 신왕국 연표가 더 믿을만 하다고 보았고, 그 연표에 따르면 아카이와사의 침입연도는 1208년이니 트로이 원정이 1209/8년에 끝나고 1년 후에 또는 같은 해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아카이아인들이 이집트에 침입한 셈이 되어, 연대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라메세스 3세 8년에 침입한 것은 데니엔이고 그 연도는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에 따르면 기원전 1176년이 된다.

학자들 사이에 아카이와사와 데니엔이 그리스인일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일치된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그 차이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카이와사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미케네에 왕궁을 두고 있었던 아카이오이인들을 비롯한 여타 그리스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30년쯤 후 이집트를 침입한 데니엔은 아르고스 왕 암펠로코스가 이끌었던 다나오이인들(아르고스인들)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바다의 민족들에는 그리스인들—아카이와사, 데니엔, 체케르, 펠레세트—이 포함되어 있고, 트로이 전쟁과 그 이후 노스토이의 활동은 바다의 민족들의 준동이라는 더 큰 범주에 포함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511년에, 이집트로부터 축출된 다나오스는 아르고스에 도래하여 자신의 왕조를 개창하였고, 다나오이인들은 라메세스 3세 때 히소스의 원래의 고향인 페니키아와 유다 중에서 페니키아를 거쳐 이집트를 침입하였다. 논자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메세스 3세의 치세에 이집트를 침입한 펠레세트를 구약성서의 블레셋 사람들로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카프토르)로부터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동시대인이었다(이 때는 히소스 시대 이전으로 보인다). 이사악이 아비멜렉과 연을 맺게 되는 계기를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사악이 그 곳[블레셋 땅]에 자리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사악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사악을 불러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공동번역 『창세기』 26:8-9)³⁶⁾

블레셋은 람세스 3세 8년 이후 필리스티아에 정착한 민족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 견해다.³⁷⁾ 그러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어구를 살핀다면, 아비멜렉이 정말로 블레셋 왕이 아니었다면 쓰기 어려운 표현인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블레셋 사람들이 동시대인들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위의 「창세기」로부터의 인용문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블레셋인들이 크레타로부터 필리스티아로 도래하기 이전에 블레셋 땅으로부터 크레타로 건너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크레타의 선형문자A에 포함된 썸어의 요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크레타로 건너갔던 블레셋인들이 어떤 원인—바다의 민족들을 준동시킨 원인은 또다른 논제가 될 것이다—으로 인해 바다의 민족들의 이동 기간에, Dnn(테니엔)의 경우처럼, 다시 원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투고일자 : 2013. 3. 27
- 심사완료일 : 2013. 4. 20
- 게재확정일자 : 2013. 4.21

36) 『창세기』 21:30-32도 참조하시오.

37) 김성, 「블레셋 민족의 기원과 바다 민족」, 『지중해지역연구』 제7권 제1호(2005.4), pp. 4-5.

38) 유윤종, 「선형 상형문자 A에서 본 『블랙 아테나』」, 『서양고대사연구』 16(2005), pp. 40-41을 보시오. 그리고 카드모스의 누이이자 페니키아 공주인 에우로페가 크레타로 건너갔다는 신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트로이 전쟁과 바다의 민족들

오 홍 식

호메로스는 『일리아스(IΛΙΑΣ)』에서 그리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 메넬라오스의 왕비 헬렌을 되찾기 위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시인답게 원인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내륙에 자리잡았던 히타이트 제국(1700-1200 BC)의 문서가 해독되고 연구되면서 역사가들은 히타이트 문서의 아키야와(Ahhiyawa)를 그리스의 아카이아인들(그리스어의 Achaioi, 영어로 Achaeans)로 보고, 소아시아 서부 해안을 놓고 히타이트와 대치하던 미케네 그리스(청동기 시대의 그리스)가 히타이트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히타이트의 봉신국이었던 트로이-히타이트는 트로이를 기지로 삼아 소아시아의 그리스인들을 제어하고 있었다-를 장악하여 해안 지역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트로이 원정의 원인을 더 넓은 차원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기원전 1200년 경 동지중해를 혼란에 빠뜨려서 청동기 시대를 실질적으로 막내리게 했던 ‘바다의 민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바다의 민족들과 그리스인들을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도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트로이 원정 직후의 노스토이(Nostoi, 트로이로부터 귀향하는 그리스군)의 활동이 파라오 메르넵타와 라메세스 3세 때 이집트에 침입한 바다의 민족들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그런데 이 주장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이집트 비문에 기록된 아카이와샤와 데니엔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인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그리스 연표와 이집트 연표를 좀 더 세밀하게 연계시키고 트로이 전쟁 후에 노스토이들이 세운 나라들의 활동을 바다의 민족들의 활동과 연계시켜 아카이와샤와 데니엔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자가 다달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트로이 원정을 이집트와 연계시켜 연구할 경우,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그리스 연표와 이집트 연표를 맞추는 작업이다(두 지역의 연표도 각각 여럿이다). 우선 두 지역의 연표를 맞추기 위해, 기원전 3세기에 기록된 『파로스 연대기』가 말하는 트로이 전쟁의 시기 기원전 1218/7-1209/8년을 믿을 만하다고 연구자의 믿음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그런 믿음의 근거는 본문에서 언급된다).

이집트에 침입한 바다의 민족들 중에 이집트 비문에서 언급된 아카이와샤(ʾIḳwš, Akaiwasha)와 데니엔(Dnn, Denyen)이 그리스인들이라고 보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메르네프타 5년에 아카이와샤가, 30년쯤 후 라메세스 3세 8년에 데니엔이 침입하였다.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측 사료에서는 ‘아카이오이(Achaioi)’로 그리고 히타이트 사료에서 ‘아키야와(Ahhiyawa)’로 기록되었다면, 이집트 사료의 ‘아카이와샤’가 앞의 두 발음과 비슷한 발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연구자는 메르네프타 치세에 이집트를 침입한 아카이와샤가 트로이로 원정한 ‘아카이오이’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두 지역의 연표로 맞출 수 있을까? 이집트 신왕국 연표로 학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캠브리지 고대사(Cambridge Ancient History)』(1973)의 연표와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2000)의 연표이다. 연구자는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의 신왕국 연표가 더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그 연표에 따르면 아카이와샤의 침입연도는 1208년이니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트로이 원정이 1209년에 끝나고 1년 후에

아카이아인들이 이집트에 침입한 셈이 되어, 연대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라메세스 3세 8년에 침입한 것은 데니엔이고 그 연도는 『옥스퍼드 이집트사』에 따르면 기원전 1176년이 된다.

학자들 사이에 아카이와샤와 데니엔이 그리스인일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일치된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그 차이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연구자의 이 연구에 따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카이와샤가 히타이트어의 아카이와, 그리스어의 아카이오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카이와샤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아카이오이인들을 비롯한 여타 그리스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데니엔은 트로이 전쟁 때 아르고스 왕 암필로코스가 이끌었던 아르고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로이가 함락된 후에도 암필로코스는 아르고스인들을 이끌고 킬리키아의 말로스(Mallus)에까지 이동하여 클라로스의 예언자 모프소스(Mopsus)와 함께 나라를 세웠다. 후에 그리스 저자들에 따르면, 말로스(Mallus)의 아르고스인들은 시리아, 페니키아에까지 이동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아르고스인들이 바다의 민족들의 하나로서 이집트를 침입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511년, 다나오스(Danaus)는 아르고스에 도래하여 나라를 세웠고 아르고스인들을 다나오이(Danaoi, ‘다나오스의 백성’이라는 뜻)로 명명하였고, 그후 다나오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아르고스 왕 암필로코스가 이끌었던 아르고스인들, 곧 다나오이인들이 이집트에 침입했다면,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Dnn(Denyeu, 데니엔)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1. 트로이 전쟁(Trojan War)
2. 바다의 민족들(Sea Peoples)
3. 노스토이(Nostoi)
4. 아카이와샤(Akaiwasha)
5. 데니엔(Denyeu)

<Abstract>

The Trojan War and the Sea Peoples

Oh, Hungshik

Homer says that the Trojan War broke out to get back Helen, the most beautiful woman in Greece. However, since documents from the Hittite empire (1700–1200 B.C) have been deciphered and studied, many of the scholars identify Ahhiyawa in the Hittite documents with the Achaeans. They argue that the Achaeans made war with Troy, the vassal city of the Hittites, when the Hittite Empire was weakened in the second half of the thirteenth century.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find better and wider reasons for the Trojan War, as opposed to the reasons traditionally held about that conflict. An attempt is under way to link the Greeks with the Sea Peoples, who plunged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chaos around 1200 BC and substantially ended the Bronze Age.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activities of the *nostoi* (the Greek army going home from Troy) after the Trojan War were related to the invasions of Egypt by the Sea Peoples. Scholars see Akaiwasha and Denyen, two of the Sea Peoples recorded in Egyptian inscriptions, as Greeks. According to Egyptian records, Akaiwasha invaded Egypt in Merneptah's third year, Denyen in Ramesses' 8th year about thirty years after the invasion of Akaiwasha.

But scholars disagre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kaiwasha and

Deny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Akaiwasha and Denyen more specifically by linking the Greek chronology with the Egyptian, and the activities of the nostoi with the activities of Sea Peoples, by using detailed Greek sources.

The conclusion which this paper has reached is summarized as follows: When one studies the Trojan War in connection with the Sea Peoples, it is a very difficult task to connect the Greek chronology with the Egyptian (Ancient Greece and Egypt have several chronologies respectively). To fit the chronologies of the two regions with each other, first of all I accept the date of the Parian Marble (inscribed in the third century B.C.): the Trojan War took place 1218/7–1209/8 BC.

The Greeks who attacked Troy were recorded as ‘Achaioi’ in Greek and ‘Ahhiyawa’ in Hittite. As ‘Akaiwasha’ in Egyptian inscription is pronounced (Akaiwasha) similar to the previous two, Achaioi could have invaded Egypt after the fall of the Trojan War. Could this conjecture fit in terms of the chronology?

The Egyptian New Kingdom chronologies which are used most among scholars are those in *Cambridge Ancient History* (1973) and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2000). I consider the chronology of the latter more reliable. According to that chronology Akaiwasha invaded Egypt in 1208 B. C. As the Trojan expedition ended in 1209/8 BC (according to the Parian Marble) and the Achaeans (that is, Akaiwasha) invaded Egypt one year later or in the same year. Then Denyen invaded Egypt in Ramesses III’s eighth year, 1176 BC, according to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There is a consensus of opinion among scholars that Akaiwasha and Denyen were Greeks, but the reasons are not presented clearly.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ccording to this paper. Akaiwasha referred to all the Greeks, including Achaeans, who fought in the Trojan

War. Denyen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Argives, who were led by Amphilochus the King of Argos during the Trojan War. After the capture of Troy Amphilochus moved to Mallus in Cilicia, and founded a country there (with Mopsus the prophet of Clarus or Colophon). Later the Argives from Mallus moved to Syria, even to Phoenicia according to Strabo (xiv.4.3).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Argives invaded Egypt as Denyen, one of Sea Peoples, because the Argives had been called Danaoi (Danaans) by Greek writers (Danaus founded a country in Argos in 1511 BC according to the Parian Marble.) It is likely that Egyptians recorded these Danaoi (Danaans) as Dnn (Denyen) in Egyptian hieroglyphs.

<참고문헌>

1차 사료

디오도로스

구약성서, 「창세기」

메르넵타 5년 비문(바다의 민족들)

스트라본

아폴로도로스

파우사니아스

파로스 연대기(Marmor Parium)

헤로도토스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Edgerton, W. F. and Wilson (1936) *J. A. Historical Records of Ramses III. The Texts in Medinet Habu*, I-II. Chicago.

연구문헌

김 성, 「블레셋 민족의 기원과 바다 민족」, 『지중해지역연구』 제7권 제1호 (2005.4), pp. 4-5.

송문현, 「트로이 전쟁-전승과 증거 사이」, 『서양고대사연구』 21(2007), p. 44.

오홍식,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영웅숭배」, 『서양고대사연구』 24(2009), pp. 132-135.

오홍식, 「다나오스 이전의 아르고스 왕조와 히소스」, 『서양고대사연구』 27(2010), pp. 241-242을 참조하시오.

유윤중, 「선형 상형문자 A에서 본 『블랙 아테나』」, 『서양고대사연구』 16(2005).

유윤중, 「동 지중해 문학에 나타난 ‘귀향’ 모티프의 역사적 의미」, 『서양고대

사연구』 18(2006).

- Albright, W. F., ‘Some Oriental glosses on the Homeric problem,’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54(1950).
- Arbeitman, Y and Rendsburg, G., “Adana revisited: 30 years later,” *Archív Orientální* 49(1981).
- Barnett, R. D., “The Sea Peoples,”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3rd ed.,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5), Volume II, Part 2.
- Bernal, Martin,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1991), 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2: 고고학 및 문헌증거』(소나무, 2012),
- Breasted, H. J., coll., ed., trans., *Ancient Records of Egypt: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Earliest Times*, 5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6).
- Brice, Trevor, *The Kingdom of the Hitti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395.
- Güterbock, Hans G., “The Hittites and the Aegean World: Part 1. The Ahhiyawa Problem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vol. 37(1983), pp.136–137.
- Oren, Elizer D. ed., *The Sea Peoples and Their World: A reassessment* (The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2000).
- Shaw, Ian(editor),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Stubbings, Frank H., “The Recession of Mycenaean Civilization,”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3rd ed.,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5), Volume II, Part 2.

<http://www.maicar.com/GML/MapReturns.html> (2012년 4월 1일)

<http://www.reshafim.org.il/ad/egypt/wenamen.htm> (2013년 2월 5일)